1959.11

세계에서 1등 가는 쏘련의 과학

☆ 쏘련의 행성간 자동 정류소

☆ 우의 사진—지난 10월 7일 모쓰크바 시간으로 6시 30분에 행성간 자동 정류소에서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뒤'면을 촬영하였다.

달 뒤'면에서 발견된 새로운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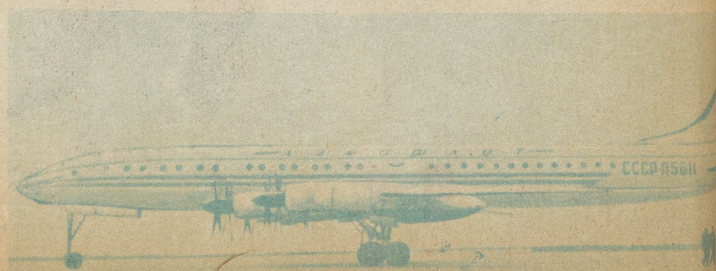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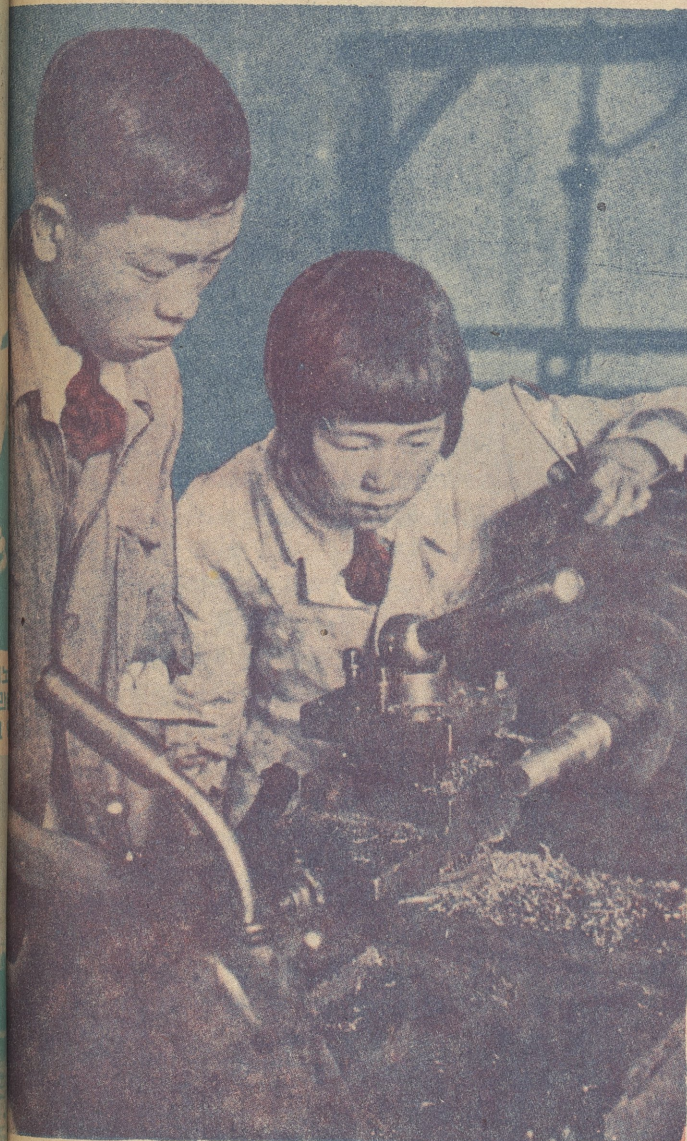
1—약 300km의 직경을 가진 분화구 바다 《모쓰크바 해》, 2—《모쓰크바 해》에 있는 《우주 비행가 해협》, 3—달 뒤'면에 있는 《남해》의 부분, 4—중앙에 구릉이 있는 《찌올꼽쓰끼 분화구》, 5—중앙에 구릉이 있는 《로모노쏘브 분화구》 6—《졸리오 큐리 분화구》, 7—《쏘베트쓰끼 산맥》, 8—《공상해》

달을 횡단한 선은 달의 적도를 표시하며 점선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계선이다.

로마 수'자는 달의 보이는 부분에 있는 대상들인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Ⅰ—《훔볼트해》, Ⅱ—《위기해》, Ⅲ—《변강해》, Ⅳ—《파도해》, Ⅴ—《스미스해》, Ⅵ—《비옥해》, Ⅶ—《남해》

☆ 모쓰크바 근교의 피쓰찌
오네르들은 자기들이 만
발사를 앞두고 점검하고

☆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쏘련의 원자 쇄빙선《레닌호》

☆ 《투—114호》 려객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11호 내용

우리들의 배움의 길은 넓고 넓다……………………(2)

이야기……아침 노을……송 정(4)

만경대 학원에서…………최 옥선(7)

소설……그들의 맹세……김 상오(10)

수상님이 다녀 가신후…김 준규(16)

우리 분단에서 하고 있는 학습 방법………김 현순(19)

다시 찾은 어머니의 품…최 축산(20)

나는 민청원이 되였습니다 ……………김 상원(22)

우리들의 통신……………………(24)

명자의 편지……………………(26)

동요……공장 많은 우리 마을…………오 웅도(27)

척척 할아버지……………………(28)

최우동생 ……………조 병권(30)

그림 이야기……어린 영웅… ……………그림 유 환기(33)

행동의 거울……………………(38)

현상 문제……………………(40)

표지 1면……아동 공원에서……………김 기만 그림

표지 2면……세계에서 1등 가는 쏘련의 과학……………

표지 3면……추운데……………최 동철 그림

표지 4면……가을의 만경대 ……………리 종룩 촬영

—인민 교육 체계를 고칠 데 대한 법령이 발표되였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번 우리에게는 또하나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안겨졌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3일 간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6차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인민 교육 체계를 고칠 데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일찌기 김 일성 수상님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시키자면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우리 나라의 형편에 맞게 인민 교육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 ×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수상님의 옳바른 지도 밑에 우리 나라는 오늘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발전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에서도 찬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놈들 때에 우리 북반부에서는 학령 아동(인민 학교에 들어 갈 나이가 된 아이들)의 겨우 35%가 학교에 들어 갈 수 있었을 뿐이 였습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1.8%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돈 없는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은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해방 후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인민 교육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새 학교들도 세우고 교과서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1949년에는 인민 학교와 중등 학교가 5천 여 개나 늘어 나게 되였으며 새로 15개의 대학과 수십 개의 전문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교육 사업은 많은 곤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하지만 당과 정부와 김 일성 수상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불'길 속에서도 새 세대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특히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유자녀 학원, 초등 학원, 애육원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외국에 류학까지 보냈습니다.

전쟁 기간에 미국놈들이 우리 학교들을 거의 다 재'더미로 만들었지만 당과 정부는 전후 짧은 기간에 그전보다 더 많고 더 훌륭한 학교들을 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동방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37 개의 대학을 비롯한 8,000 개의 학교들에서 250만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은 무료로 공부하고 있거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수상님께서 항상 우리 나라의 인민 교육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가 튼튼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새 기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일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여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사람들의 손 로동 대신 전기와 기계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일을 하자면 많은 지식과 기술을 알아야 하며 높은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이미부터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 라는 당의 구호 밑에 배운 것을 실제 실천해 보고 만들어 보면서 자기 지식을 더욱 쓸모 있게 다져 왔습니다. 특히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 후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여 왔습니다.

많은 새 기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민 교육 체계에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 알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 중학교가 그러합니다. 오늘의 고중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서 실재 써 먹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여러가지 모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시키자면 새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이 고쳐집니다.

지금의 인민 학교와 중학교는 그대로 둡니다. 중학교 우에는 2년제 기술 학교가 있습니다. 기술 학교는 1962~1963학년도부터 의무 교육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력사, 문학, 지리, 물리, 수학 등 일반 과목도 배우며 기술 과목들도 배웁니다. 이리하여 한 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가진 로동을 사랑할 줄 알며 문화 수준이 높은 일'군으로 준비시킵니다.

기술 학교 다음에는 2년제 고등 기술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60~1961 학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중등 기술 일'군들을 키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고급 중학교,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는 모두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고등 기술 학교 우에는 지금의 대학들이 그냥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유치원을 나오자 들어 가는 11년제의 음악, 무용, 조형 예술 부문 학교와 외국어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4년제 체육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 가는 3~4년제 교원 대학과 고등 기술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 가는 4년제 사범 대학이 있습니다. 장차 지금의 사범 전문 학교는 없어집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2년제 야간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및 통신 기술 학교가 생깁니다.

지금의 유자녀 학원, 초등 학원, 애육원, 영예 군인 학교, 로동 학원, 맹아 학교들은 전과 다름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인민 교육 체계는 참으로 우리 나라 인민 교육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것은 로동당의 교육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조선 인민의 또 하나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앞날을 위하여 이처럼 훌륭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당과 김 일성 수상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합시다. 배운 것을 꼭꼭 실천해 보며 만들어 봄으로써 쓸모 있는 지식을 한층 깊게 다져 나가며 로동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김 일성 수상님의 항일 빨찌산 전통을 비롯하여 로동당이 걸어온 길을 더욱 깊이 배우고 본받아 모두다 공산주의 붉은 마음을 키워 나갑시다. 그리하여 다같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아침노을

글 송정　　그림 최 한진

물사태에 쓸리고 만 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음산하기만 하였다. 순길네는 본래 이 거리에서 백리 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논'골에서 살다가 그 몸서리치는 물란리에 요행 목숨만을 건져 가지고 온 식구가 이리로 이사왔다.

거리와 마을마다에서는 숫한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리재민들도 숫해 생겼다. 그러나 미국놈들과 리 승만 역도놈들은 이 수많은 리재민들을 알은 체도 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다 쓰러져갔다.

순길 아버지는 행여나 일'자리가 없는가 하여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으나 허사였다. 어지간한 집들은 다 쓰러진 거리에서 일'자리를 잡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만치나 어려웠던 것이다.

순길네는 굶어 죽기엔 매한가지란 생각으로 장마당 곁에다 거적대기로 막을 치고 거기에 눌러 앉았다. 일'거리를 얻지 못한 순길네는 매일처럼 주린 창자와 싸우면서 뜬 눈으로 온밤을 새울 수 밖에 없었다. 더우기 가슴 아픈 건 물란리통에 오금을 잘 쓰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약 한 첩 사다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것이였다. 열 여섯 살 난 순길은 배 고파 우는 동생들을 데리고 거리 밖에 있는 연못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고 해뜨기 전에 집을 떠났다가 어둠을 안고 돌아 오기가 일수였다.

그날도 순길은 손아래'동생 태길과 다음 동생 용길을 대리고 연못에 나갔다가 금시 움막으로 돌아 온 길이였다. 그가 들고 온 싸리 꼬챙이에는 손'바닥 반만한 메기가 한 마리 꿰혀 아그미를 벌리고 있을 뿐이였다. 거적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귀를 째듯이 울려 왔다. 비통에 찬 울음 소리였다. 순길은 눈물이 헤픈 어머니가 역정스러워 그만 고함 소리를 지르려다가 희미한 방등'불 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 이 원쑤를 언제 갚나, 이 원쑤를…》 하고 어머니는 대성 통곡하면서 소리소리친다. 《뼈를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들, 아— 씨를 말라 없앨 놈들…》 어머니는 나중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울었다.

사정인즉 이렇게 되였었다. 아버지는 일'감을 찾아 정거장에 나갔다가 마침 미군놈들 한테 붙들렸다. 놈들은 그에게 자기네 트럭의 짐을 부리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품값 받을 일을 맘속으로 기뻐하면서 등이 휘게 짐짝을 업어 날랐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그가 품값을 요구하였을 때 저희들끼리 희희덕거리던 놈들은 이거나 먹으라는 식으로 입에 씹고 있던 것을 그의 얼굴에 내뱉았다. 그것은 고기 통조림이였다. 순길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부르쥐고 품값을 내라고 대들었다. 그러나 미군놈들은 총탁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미군놈들은 그자리에 쓰러져 몸대기는 순길 아버지를 내려다 보면서 장한듯 껄껄 웃으며 트럭을 타고 갔다. 그러자 이번엔 멀리에서 이 꼴을 본 순경놈들이 달려와서 순길 아버지를 붙들어 갔다. 그후 순경놈들은 왜 미군한테 덤벼 들었는가?하고 따지면서 온 종일 그에게 무리매를 앵겼던 것이다.

움막안은 어두웠다. 끝없이 솟아나는 눈물이 순길의 두 뺨을 적시였다.

《처죽일 미국놈의 새끼들!》 하고 순길은 벌써 몇 번이나 입속으로 소리친지 모른다. 그렇다. 자기들의 모든 불행은 악랄한 미제놈들과 리 승만 역도들 때문이다. 이번 풍수해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놈들은 찰거머리처럼 남조선 인민들의 피를 빨아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눈이 어둡고 방둑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어 수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해 놓지 않았었다. 이러니 부슬부슬 내리는 비'방울에도 견디지 못하고 모래성이 무너지듯 바람과 비에 남조선 농촌은 황페화되여버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놈들의 행패란 이루 말이 아니였다. 아버지가 오늘 당한 일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남조선은 미군놈들의 무법천지인 것이다.

순길의 눈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더덩실 춤을 추면서 가을걷이 하는 들판이 떠 올랐다. 어쩌나 탐스럽게 알알이 열매졌는지 벼이삭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끄떡하지도 않는다. 가리마처럼 들 한복판을 꿰고 흐르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마다엔 물이 차넘치고 멀리 산턱엔 가을 해'빛을 받아 넓은 저수지가 금빛을 뿌린다.

한참후 순길의 눈엔 목에다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웃는 얼굴로 5층 학교에 들어가는 자기 또래 아이들의 씩씩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림책에서 본 리 승만의 진해만에 있는 별장보다 더 훌륭한 바다'가의 야영소에서 멱을 감으며 즐기는 그들의 명랑한 웃음 소리가 들려 왔다. 명절날이면 소년단 기'발을 앞세우고 기운차게 행진하면서 부는 그들의 루랑한 나팔 소리도 들리였다. …이 모든 것은 순길이가 월사금을 미처 내지 못해서 졸업을 반년 앞두고 작년 이맘때 《국민 학교》에서 쫓겨날 때 그의 담임인 김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였다. 김 선생은 이런 이야기 끝에 남조선 어린이들에게도 북조선의 소년단원들과 같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없이 행복한 가운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순길을 위안해 주었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기는 고사하고 세월은 더 나빠만져 가고 있지 않는가, 순길은 그후 김 선생이 교장의 모리 행위를 폭로했다는 죄로 학교를 쫓겨 났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그랬던 것이 얼마전에 순길네가 이 거리로 들어온지 며칠 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김 선생을 만났었다.

순길은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른다. 로동자 차림을 한 김 선생은 더 미덥고 씩씩해 보였다. 그러나 김 선생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지갑에 들었던 돈을 깡그리 털어 순길에게 주고나서 어디론가 인차 가버렸던 것이다.

기둥처럼 믿고 있던 아버지마저 미국놈들에게 반주검이 된 지금 순길의 눈 앞은 캄캄하였다. 오랜 고생살이로 사지도 변변히 쓰지 못하는 어머니, 여윌 대로 여윈 어린 동생들… 이 모든 집안 식구를 자기가 거느리고 살아 나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순길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더우기 무서운 겨울이 코앞에 닥쳐 오고 있는 이때 집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가족들은 필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만은 사실이였다. 순길은 가슴이 미여지듯 아팠다. 어떻게 눈뜨고 그런 참상을 볼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순길은 찬 땅'바닥 우에 누워 잠 한잠 자지 못하고 몸을 뒤치락거렸다. 그는 비상한 결심을 한 뒤여서 가족들의 신음에 가까운 숨소리를 들으며 소리없이 울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가족들과 작별을 하였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순길은 혼자 거적을 들치고 밖으로 나왔다. 연못으로 향하는 발'길은 천근 만근으로 무거웠다.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고 싶었다. 그는 정신을 잃은 아이처럼 흰 서리 내린 신새벽 거리를 허둥지둥 걸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죽음을 택한 어린 순길의 가슴은 어름'장처럼 차거웠다. 귀'가에서는 자기도 알지 못할 소리가 웅웅거렸고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아니 순길이가 아니냐?》

누군가 다급히 소리치며 비칠거리며 절어가는 순길을 덥썩 끌어 안았다.

《…》 순길은 정신이 번쩍 들어 머리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

《김 선생님!》 순길의 입에서는 갑자기 흑 흑 흐느끼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였다.

《순길아, 이게 웬 일이냐 응?》

순길은 칼로 가슴을 베는듯 아팠다. 김 선생의 품에 머리를 묻고 한참 울던 순길은 김 선생이

《왜 그러냐? 응 어서 말하렴》하는 바람에 눈물을 그치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김 선생은

《넌 잘못 생각했다. 네가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너 혼자 죽어 편안하자구 죽는단 말이냐? 그리고 네가 그런 것을 하면 아마 네 부모들도…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고 말을 떼였다. 그는 순길의 어깨를 잡고 말을 이었다. 《부모가 그 모진 고생을 이겨 가는 것도 다 너희들의 장래를 믿기 때문이다. 순길아,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서 미국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그 놈들과 싸워야 한다.》

《선생님, 그놈들이 언제 나가겠어요?》

《순길아, 생각해 봐라, 강도놈들이란 남의 집에 뛰여 들었다가도 그집 주인이 힘이 센 걸 알면 도망치는 법이란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강도놈들은 우리 땅에서 물러 가지 않을 수 없단다. 순길아, 정말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알려 주지, 그럼 아마 다시는 죽을 생각은 안하게 될게다! 들어 봐라…》 하면서 김 선생은 10월 말에 평양에서 있은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6차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아 듣기 쉽게 이야기하여 준다. 학교에서 쫓겨난 후 로동자들과 손을 잡고 반미 반 리 승만 투쟁의 길에 들어 선 김 선생은 승리의 신심으로 빛나는 얼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놈들이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일어서야 한다고 대한 민국 《민의원》 의원들과 남조선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 각국 국회에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물러 간 후 남북 조선을 통해서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총선거를 하여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제의를 했다는 것과 남북 조선 군대의 수를 각각 10만으로 주리며 남북 조선간에 경제, 문화 교류의 길을 열어 놓는 등 모든 조선 사람들의 념원을 담은 여러 가지 제의를 하였다. 공화국 북반부는 정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복구 건설의 첫삽을 들던 그런 때의 북조선이 아니다. 북조선에서 만든 쎄멘트 철근을 가지고 남조선 농촌이 바람과 물사태에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남조선에도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김 선생은 남조선 각 곳에서 최고 인민 회의의 호소를 받들고 미군을 물러 가게 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서 싸우는 로동자 농민들의 이야기도 했다. 순길의 가슴은 높뛰였다.

김 선생은 래일 이십리 밖의 탄광에 오마고 하면서 바쁜 걸음을 재우쳤다. 동쪽 하늘엔 아침 노을이 더욱 붉게 타올랐다. 그것은 마치도 미제 놈들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싸움의 길에 떨쳐 일어선 모든 조선 사람의 마음과도 같았다. 순길은 자기의 마음도 그처럼 불타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경대 학원에서

글 최옥선 사진 김 창규 촬영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는 만경대 학원 대 4분단에는 아름답게 장식한 표지 우에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록》이라고 쓴 책이 있다.

이들은 여기에 김 일성 원수님을 선두로 한 혁명 투사들의 빛나는 혁명 정신과 품성들을 본받고 있는 자기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는 혁명 투사들과 같은 높은 자각성을 발휘한 사실, 대담성과 인내성, 난관 극복의 정신, 맡은 임무에 대한 충실성, 동지 우애심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연구록은 비단 4분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 분단 마다에 있는 것이다.

지금 만경대 학원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이 학습하고 배운 빛나는 혁명 정신을 실지 생활에 옮기기 위해 힘 쓰고 있다.

기자가 이 학원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직일을 서고 있던 소년 앞에 한 소년단원이 나타났다. 《내게 직일을 인계하고 들어가 학습하라.》 하고 그는 다정히 말하는 것이였다.

《괜찮어! 난 내 임무를 완수할 테야.》

《그렇지만 우선 뒤떨어진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어서 들어가 공부해.》

직일을 서고 있던 동무는 한동안 고집을 부렸지만 끝내 직일을 교대해 주고야 말았다.

이들은 바로 4분단 최우등생인 안 히곤이와 새로 편입하여 온 최 송일이 였다.

이렇듯 4분단 소년단원들 사이에는 참되고 아름다운 혁명적 동지애가 항상 생활 속에서 꽃피여 나고 있다.

이들이 고상한 동지애를 갖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거듭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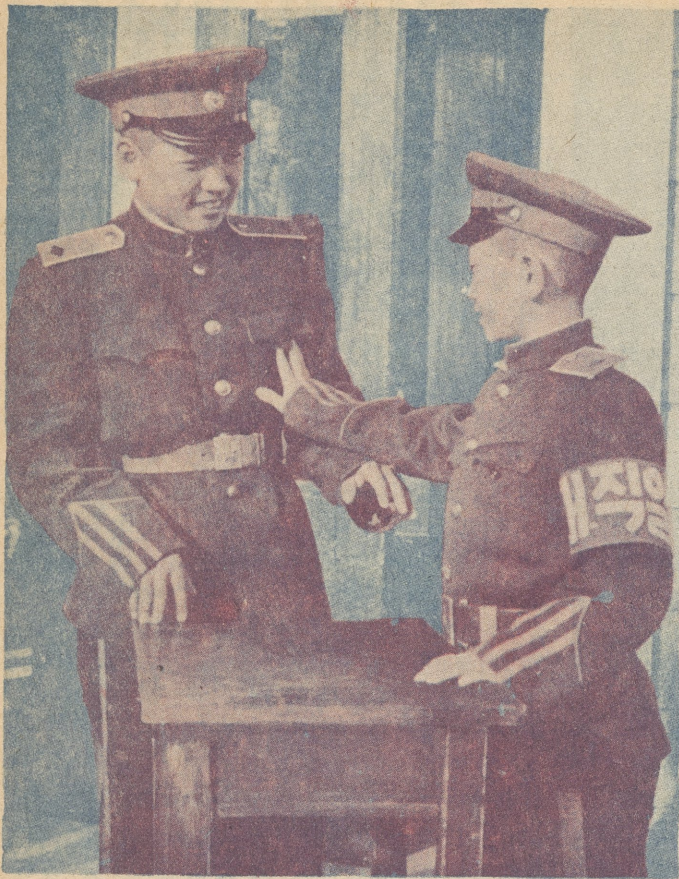
4분단 기록 책에는 갓 편입해 온 심 영환 동무가 어떻게 하여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를 배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서 발휘하게 되였는가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영환이의 고향 마을인 평남 순안군 신성 농업 협동 조합에 김 일성 수상님이 방문하시게 되였다. 이때 수상님은 애국렬사의 자녀인 영환이와 기타 동무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끝에 만경대 학원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들의 뜻을 이으라고 하시였다.

꿈 속에서라도 한 번 만나 뵈였으면 하고 생각해 오던 수상님을 직접 만나 이런 따뜻한 배려까지 받게 된 영환이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었다.

영환이는 만경대 학원에 가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나 진작 만경대 학원 생활에 뛰여 들고 보니 결심과는 어긋났다.

영환이는 자기 결심 대로 학원 규률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내게 직일을 인계하고 들어가 학습하라》
《괜찮어 난 내 임무를 완수할테야》

그러나 항상 원수님과 혁명 투사들의 빛나는 혁명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곳 동무들이 볼 때에는 영환이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불만족한 점이 많았다.

영환이는 대렬에서도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있는가 하면 아침 기상 시에도 제때에 일어 나지 못하고 늦잠을 자며 자습 시간에도 잡담하기가 일수였다.

분단 위원장인 렴민이와 분단 열성자인 선홍, 주경 동무들은 여러 가지로 친절히 영환이를 타일러 주었다. 그러나 결함은 반복되였다. 열성자들은 하루 생활을 총화할 때마다 동무들 앞에서 영환이의 결함을 지적해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같이 노는 때면 영환이와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방조하려 하였다.

영환이는 열성자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는 분단에서도 항상 주의를 받는 몇몇 아이들과 마음이 맞아서 열성자들이 우쭐댄다고 시비까지 하게 되였다.

영환이의 이런 행동을 깨달은 열성자들은 영환이와 같이 조용히 둘러앉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항일 유격 투쟁 시기 일제 경찰의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혹시 헛 소리를 해서 동지들의 신변이 위험해 질가 념려하여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동지들을 구원한 혁명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며 자기 동지의 결함을 조금도 숨김 없이 비판하여 시정 시킴으로써 동지를 위험한 길에서 구원한 참된 혁명적 동지애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영환이에 대한 동무들의 충고는 결코 그 어떤 개인 감정이나 덮어 놓고 나무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근차근 타일러 주었다.

영환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너희들 만침 혁명 투사들을 연구도 했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할줄 안다. 하고 마깝지 않게 생각하였다.

사실 영환이는 혁명 전통에 대한 독서도 하고 있으며 혁명 전통 연구에도 열성적으로는 참가하는 동무였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삼지 못하고 있었다.

분단 열성자들은 영환이의 그릇된 점들에 대하여 더 친절히 타일러 주는 한편 자기들의 실지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열성자들은 토끼사에 당번나간 영환이의 빨래도 해 주고 학습이 밀릴 때면 동무를 밤 늦도록 방조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한편 열성자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반장인 안 히곤 동무가 대렬에서 규률을 위반했을 때 열성자들은 용

서 없이 날카롭게 충고하였으며 그러면서 그의 잘못을 고쳐 주는 참된 동지애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안 히곤 동무가 병으로 입원하게 되였을 때였다. 그전날 안 히곤 동무를 날카롭게 충고한 열성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를 도울 것을 분단 동무들에게 제기하여 나섰다.

이때 분단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간식용 과자와 파일을 안고 안 히곤 동무를 찾아 갔다. 그 속에는 영환이도 끼여 있었다.

분단 동무들의 동지애는 이것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영환이가 감기에 걸려 누웠을 때 약을 시간 맞춰 먹이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범은 영환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야 말았다.

영환이는 이러한 열성자들의 모범을 통하여 혁명 투사들에게서 배운 고상한 혁명 정신을 어떻게 생활에서 읽어 나가는가를 깨달았다.

《진실한 동지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실한 동지가 될수 없단 말인가?》 영환이는 자주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되였다.

얼마 후 영환이에게서도 아름다운 행동이 싹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난 학기 초에 분단 위원장을 대신하여 학용품을 타다 분단 동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였다. 동무들에게 모두 돌려 주고 직일 당번으로 나간 신 종벽 동무의 몫을 세여 보았을 때 백지 두 장이 모자랐다. 이때 마침 직일을 교대한 동벽이가 들어 와서 《이것이 내 몫이냐?》하고 자기 책상 우에 놓인 학용품을 간수하려 하였다.

영환이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내게 종이가 두 장 더 왔드랬어》하고 동벽에게 자기 종이 두 장을 돌려 주었다.

곁에 앉아 있던 분단 열성자인 리 주경이는 영환이가 자기 것을 양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곧 분단 벽보에 알려지게 되였다.

그 후에도 영환이는 이러한 생활을 거듭 하였다.

이리하여 분단에서는 학업 성적도 우수하거니와 훌륭한 동지애를 발휘하고 있는 영환이를 4반 반장으로 선거하였다.

영환이는 가끔 열성자들과 이야기할 때면 《나는 처음에 학교에 와서 진실한 동지애란 어떤 것인지 몰랐어.》하고 말하군 한다.

이런 이야기는 현재 이 학원의 누구에게서든지 찾을 수 있는 이야기다.

기자는 학원 소년단원들의 모든 생활에서 꽃피여 나고 있는 항일 투사들의 훌륭한 혁명 정신을 그 어디에서나 엿볼 수 있었다.

분단 동무들은 병으로 입원한 안 히곤 동무에게 자기들의 간식용 과자와 파일을 안고 찾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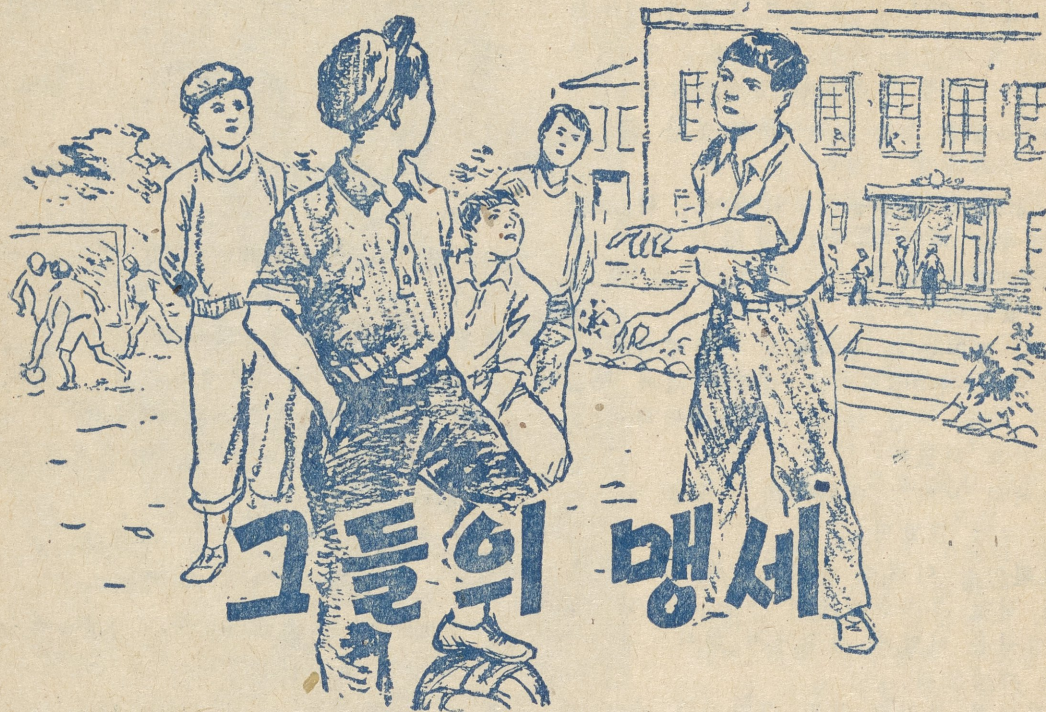
그들의 맹세

글 김상오

그림 오영복

분단 위원장 영기는 우울한 마음으로 직원실의 문을 열었다. 오늘 전교적인 경쟁으로 진행된 겨울을 앞둔 위생 문화 사업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지도원 선생이 좋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더구나 선생님이 회의에 가시면서 신신 당부하신 일이 그 모양이 되지 않았는가! 영기는 새삼스럽게 회도에 대한 분이 치밀었다. 모두 그 자식 때문이 아냐? 그 자식이 그 일을 태공하고 다른 아이들까지 몰구 달아나 버린 탓 아니구 뭐야?… 이번에야 말로 선생한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단단히 좀 혼이 나도록 해 주어야겠어 하고 영기는 선생님께로 다가 가면서 마음을 다져 먹었다. 일은 이렇게 된 것이였다.

분단은 겨울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 추기 위생 사업과 미화 사업으로 교실과 밖의 자갈 펴기와 식수 사업 그리고 화초들의 월동을 위한 준비로서 꼬마 온실을 꾸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였다. 총 검열이 진행될 것이고 사업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회도는 다른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일에서 빼소니쳐 뽈을 차려 간 것이다. 부아가 난 영기는 밖으로 나갔다.

회 도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자기와 친한 아이들 십여명을 데리고 공을 차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찌프리고 다가오는 영기를 보자 짐짓 못본체 하였다. 영기가 바루 그의 곁에까지 가서 《회도야》하고 노여움이 섞인 음성으로 불렀을 때에야 그는 곱지 않은 얼굴로 영기를 쏘아 보았다. 영기는 그를 나무랬다. 그러나 회도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딴 곳으로 가버렸다.

흥분된 영기의 이야기를 지도원 선생님은 신중하게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묵묵히 무엇을 생각하더니 영기를 바라 보며 물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지?》

《모임에서 단단히 비판을 해서 고쳐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기는 분격한 어조로 서슴 없이 말했다. 선생님은 또 한참 잠잠고 계시다가 빙긋이 미소를 띠우고 말했다.

《그런데 영기는 그전까지만 하여도 회도하고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분단 열성자 선거 때두 회도가 먼저 영기에 대해서 지지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땐 제가 그애 학습을 돕고 있을 때 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 바빠서 다른 애한테 맡기려구 합니다.》

영기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무언가 생각 키우는 데가 있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또 말하였다.

《그런데 회도는 다른 아이들 하고는 그렇지도 않는데 왜 영기하고만 틀리게 됐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본 적 있나?》

《전 뻔합니다. 잘못에 대해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영기는 분단 위원장이란 걸 잊어서는 안돼. 물론 회도의 태도가 나쁘지만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을 잘 캐 보고 그 원인이 영기 자신에게도 일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야… 그리구 래일 모임을 가지고 그 문젤 의논하고 회도에게 방조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영기는 그날 집에 돌아 오면서 이것 저것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사실 그들은 그리 나쁜 사이는 아니였다. 새로 전학해 온 회도는 나이도 많고 완력도 센 축이였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였다. 다만 그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 그래 그는 자기 보다 나이도 한 살 아래인 영기에게서 뒤떨어진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영기는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보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딘가 우쭐해서 대하는 버릇이다. 이것은 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분단 사업을 하는 데서도 이따금 나타나군 하였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언짢은 생각을 품게 하리만큼 눈에 띄이는 것은 아니였다. 영기가 인민반 때부터 최우등을 해 왔고 분단 사업에서도 언제나 모범이였기에 이 우쭐하는 버릇이 두드러지게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회도를 돕는 데서도 그러했다. 그는 회도를 방조하는 것을 만족해 하였다. 회도는 말없이 그에게서 배우려 했다. 그래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손'재간을 영기를 위해 바치기도 했다. 즉 공작 과제나 장난'감 만들기가 그것이다. 회도는 영기가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짜증을 낼 때도 별로 성을 낸 일이라군 없었다. 그만큼 그는 영기를 믿었고 따랐다. 그래 열성자 선거 때는 지지 토론까지 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영기가 분단 위원장이 된 뒤부터는 회도의 태도가 달라졌다. 영기에 대한 회도의 태도는 어딘가 서먹서먹해 졌고 때로는 영기에 대해 맞서는 일까지 생겼다. 영기는 회도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영기는 이런 생각을 하며 회도네 집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영기는 수도에서 바께쯔에 물을 길어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회도를 보았다. 영기는 회도의 집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안을 엿보았다. 부엌에서 떼그럭 소리와 솥뚜껑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초중 1학년생인 회도의 누이 동생 희영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들어 갔다. 회도가 누이 동생 밥 짓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회도에겐 어머니가 없었다. 전쟁 때 미국놈들의 폭격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트레스트에 다니는 아버지가 그들 남매를 부양하고 있었다. 때문에 밥 짓는 일은 늘 누이 동생이 하였다. 그래서 회도는 아버지를 도와 그외의 집안 일들을 도맡아 했다. 영기는 저도 모르게 부모를 다 갖고 할머니까지 계신 자기와 비교해 보고 회도가 가엾게도, 용케도 생각되였다.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고 안 계시는 동안 집안 일을 치우고 동생을 돌보고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랴!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한 번

도 그런데 생각을 돌려 보지 않았구나, 그러한 그를 돕기는 커녕 동정도 하지 않았구나 하고 영기는 생각하였다. 그가 가끔 방과 후의 작업에서 빠지여 먼저 집에 돌아 가군 한 것도 말을 안하고 간 것은 나쁘지마는 따져보면 그럴 사정도 있는 것이다. 그런걸 그런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그가 작업에서 빠질 때 마다 덮어 놓고 모임에서 희도를 나쁘다고만 했고 벽보에까지 내군하던 일을 회상하였 다. 그런 데서 혹 그애가 감정이 상했을지도 모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구 생각하면 영기는 자기가 분단 위원장이 된 후부터는 주로 분단 열성자들과만 친히 지냈고 희도와는 멀어졌으며 그의 학습이나 숙제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하지 않았고 도와 주지 않았다.

한 번은 희도가 숙제를 도와 달라고 영기한테로 찾아 왔다. 사실 그때 영기는 별로 할 일은 없었다. 그런 데도 영기는 어떻게 말했던가?

《얘! 넌 내가 바쁘다는 걸 알겠구나! 내가 어떻게 개별적인 아이들의 숙제까지 도와 준담… 이따 분단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다른 아이를 부쳐 주마!》

영기는 분단 위원장의 위신이나 상한듯 량미간을 찌프리기까지 했다.

그때 희도는 몹시 섭섭하고 무안한 얼굴로 돌아 갔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영기에게로 오지 않았다. 영기는 영기 대로 다른 아이를 희도에게 부쳐 주지도 않았다.

희도는 숙제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 나오는 때가 많았다. 영기는 원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임과 벽보 에서만 충고를 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희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었고 소년단원들을 대하는 데서도 우쭐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이게 나타나기 시작 하였던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영기가 다른 아이로 되였다고 수군거렸다.

희도는 차츰 영기를 아니꼽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공부를 못하면 못했지 영기한테는 다시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였다. 그러자 그는 차츰 분단을 떠나 멋대로 생활하기 시작 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영기는 어쩐지 가슴이 섬적해 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 말이지 자기는 분단 위원장이 된 후부터는 희

세 번 만에야 겨우 불을 살려 놓고 물'독을 들여다 보니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물을 길었다.

도와 다정하게 가슴을 털어 놓고 이야기도 안해 보지 않았던가?

영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 왔다.

한편 희도는 이튿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전날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 한테 꾸중을 듣고 동무들에게 또 비판을 들으리라고 생각되였기 때문이였다.

방과후에 영기는 분단 모임을 가지기 위해 희도를 데리려 희도네집으로 갔다.

그러나 희도는 집에 없고 그의 누이동생 희영이 혼자 있었다. 그는 오빠가 아까 어데론가 나갔다고 말했다.

《밥 하라구 했는데 불이 꺼졌어.》

희영이는 난처한 듯이 중얼거렸다. 영기는 부엌으로 나가서 아궁이를 들여다 보았다. 정말 불이 꺼져 있었다. 영기는 한참 들여다 보고 있다가 희영이에게 말했다.

《희영아, 우리 불 피울가?》

영기는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아궁이 속에 있는 피다 만 탄 부스러기와 재를 깨끗이 끌어 낸 다음 장작을 패여 그 속에다 넣고 불 수쏘시개에다 불을 부쳐 넣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종이와 장작만 훌떡 붙고 탄에까지 불이 당기지 않았다. 영기는 내굴에 숨이 막히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시험해 보았다. 세 번 만에야 겨우 불을 살려 놓고 물'독을 들여다 보니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물을 길었다. 영기가 물'독을 가득 채울 때 쯤해서는 어린 희영이가 쌀을 씻어서 솥에다 앉히였다. 그리고 나서 둘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희도를 기다리였다. 그러나 바깥은 어슬어슬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는 데도 희도는 돌아 오지 않았다. 희도가 선생님이 찾아 오실 것을 두려워하여 몸을 피한 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영기의 마음은 안타까웠다.

부글부글 끓어 난 밥을 잦힌 다음 솥을 떼여 내려 놓고 탄'불까지 덮어 주고 나서 영기는 희도의 집을 나왔다. 집 회모도리를 돌아서려 할 때 그는 모퉁이에 숨듯이 서 있는 희도를 보았다. 영기는 놀랍고 반가워서 한 발 자국 다가 가면서 웨치 듯이 그를 부르려고 했다. 그러자 희도 편에서 먼저 성큼성큼 영기에게로 다가 오더니 다짜고짜 볼 멘 소리로 웨쳤다.

《야 인마, 네가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셈이냐?!》

어스름 속에서 영기는 희도의 성이 나서 번쩍이는 눈을 보았다. 영기는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희도야, 난…》

《뭐야, 이자식아》

희도는 갑자기 달려 들어 다짜고짜 영기의 멱살을 쥐였다. 그의 오른 주먹은 이제라도 영기를 때릴 듯이 반쯤 쳐 들려 있었다. 영기는 그 바람에 뒤로 비틀비틀 밀렸으나 태연한 태도를 잃지 않고 똑바로 희도를 마주 보며 그를 납득시키려고 하였다.

《희도야 내 말 좀 들으라구, 난 너와…》

그러나 희도는 영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듣기 싫어 인마 그래 날 데려다 어쩔 작정이냐? 건방지게 분단 위원장이나 되

면 다가, 우쭐대구.》

그리고는 잠시 그냥 영기를 노려 보고 있다가 떡살을 놓고 훌딱 모소리를 돌아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 가고 말았다. 영기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회도의 마음을 풀 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그와의 사이를 다시 친밀하게 돌려 세울 수 있을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회도네 집 문깨로 다가 가서 그를 불러 보았다. 그러나 몇번을 련거퍼 불러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영기는 문을 열고 들어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곧 다시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다. 회도가 그렇게 성이 나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해도 소용 없으리라고 생각되였기 때문이다.

분단 모임은 회도의 참가 없이 가졌다. 모임에서는 이번의 잘 되지 않은 위생 문화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 회도의 문제가 이야기되였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영기는 분단 위원장으로서의 자기의 잘못된 사업을 비판하였다. 그는 자기가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되면서부터 우쭐대기 시작했으며 그 때문에 많은 동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는 것, 특히 자기를 분단 열성자로 추천하고 지지 토론까지 한 회도가 지금은 자기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자기의 동무답지 않은 태도 때문이며 따라서 회도가 분단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회도에게 정말 소년단원 다운 따뜻한 우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자기 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하에서 아버지를 도와 집안 일을 돌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거기엔 생각도 돌리지 않고 무엇 하나 도우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말했다.

모임에서는 영기의 제기에 따라서 분단 사업에 락후한 동무들 특히 회도에게 따뜻한 우정으로 대하여 그를 고쳐 주기에 노력할 것이며 또 그들의 가정 생활까지도 잘 알아 보고 곤난한 점을 도와 주기로 했다. 그리고 회도가 손'재간이 좋으니만큼 그를 분단 사업에 적극 끌어 들일 것도 의논되였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부터 영기는 회도의 생각을 하였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을가 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였다. 그는 오늘은 학교에 갈 때 그를 찾아서 꼭 함께 가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애가 아직 성이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거나 하고 걱정하였다.

그런데 영기가 좀 일찍 조반을 치른 후 책가방을 메고 나선즉 뜻 밖에도 문결에 회도가 서 있었다.

《회도야, 너 왔니 왜 들어 오지 않았니?》

영기는 반가워서 부르짖었다. 회도는 어던지 퍽 어색한 얼굴을 하고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모양으로 보아 그가 그렇게 서 있은 지가 오랜상 싶었다. 영기는 다가 가며 말했다.

《회도야, 학교에 가자!》

《아냐… 난 좀 너헌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놓고도 그는 얼굴이 붉어졌을 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응, 학교에 가면서 이야기하자꾸나.》

《나두 네게 할 말이 있어.》

《네 얘긴 다 들었어…어제 모임에서 네가 한 얘기 말야…아까 수도에서 학준이헌테 다 들었어…》

《그래? 난 사실 네게 잘못이 많았어, 용서해 다우.》

《넌 뭘 별 소릴…내가 나빴어…》

《아냐 내가 나빴어 난 너헌테 사과를 해 난 그걸 들어 달라구 어제 널 데리러 왔댔어.》

《알아. 그런 걸 난…난…》

회도는 말을 맺지 못하고 얼굴을 더 붉혔다. 그러더니 툭 떨어뜨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너 어제 수고 많이 해 주었두나… 희영이 한테 들었어.》

《수곤 무슨 수고…헌데 야 그 탄'불 피우기가 쉽지 않더구나, 세 번만에야 겨우 피웠단다. 장작만 없앴어…》

영기는 회도를 바라보며 웃었다. 회도도 마주 영기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의 웃음도 눈도 이전과 같은 밝고 따뜻한 것이였다. 영기는 동무를 도로 찾은 기쁨에 가슴이 찌르르 했다.

《그건 탄을 제때에 올려 놓아야 돼 일러두 안 되고 늦어두 안 돼. 그리구 장작을 아끼면 자꾸 꺼져서 결국 더 많이 들게 되는 법이야.》

회도는 갑자기 활기를 띠고 자기의 풍부한 살림 지식을 늘어 놓기 시작하였다.

영기는 감탄하듯이 그를 바라 보았다.

회도는 처음엔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했으나 결국 집에 들어가 책가방을 메고 나왔다.

둘이서 나란이 걸어 학교로 갔다. 가는 도중 회도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듯이 걷고 있다가 힐끔 영기를 바라 보고는 몹시 미안한 듯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런걸 난… 아차 하더면 널 글쎄…》.

《아차 하더면 난 묵사발이 될번 했지. 난 이젠 녹았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래두 무섭진 않더라 이상하지?》

《만약 내가 그때 네게 정말 손찌검을 했더라면 어떡할번 했니? 난 지금 쯤 내 이 손을 찍어 버리구 싶을 거야.》

회도는 자기의 오른 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고 들여다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는 이번엔 또 영기의 떡살을 잡았던 자기의 왼손을 들어서 무슨 끔찍한 것이라도 보듯이 눈살을 찌프리고 들여다 보았다.

영기는 문뜩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웃음을 걷운 엄숙한 얼굴로 역시 걸음을 멈춘 회도를 똑바로 쳐다 보며 말했다.

《너 그 완력 쓰는 버릇은 고쳐야 해. 그건 소년단원으로서 수치야!》

《응, 고칠래.》

회도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꼭?》

《꼭.》

《약속했다. 난 이제부턴 우쭐대지 않고 아이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겠어…》

《영기야, 난 정말 맹세해.》

그들은 굳게 서로 손을 쥐였다.

《다른 맹세는 동무들 앞에서 할테야 난 고쳐야 할 게 많으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는 기쁨과 흥분 속에 회도와 나란이 걸어 가면서 영기도 속으로 자기 맹세를 다졌다.

절대로 우쭐대지 않을테다!

소년단원답게 동무들을 아끼고 돕고 사랑할테다!…

《그런걸 난…아차 하더면 널 글쎄…》
《아차 하더면 난 묵사발이 될번했지, 난 이젠 녹았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래두 무섭진 않더라 이상하지?》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

—자강도 별오 초등 학원 대 제 1 분단에서 —

글 김 준규

그림 최 순천

만포 역에서 내려 압록강 변을 따라 십리 남짓 걸어 가느라면, 나지막한 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한 학교가 보인다. 여기가 바로 별오 초등 학원이다.

정문에 들어 서니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운동장에서는 많은 소년단원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뛰놀고 있었다.

《1분단 동무들의 생활을 보는게 좋겠습니다.》

나의 인사를 반가이 받으며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1분단 동무들과 함께 학원 생활의 즐거운 사흘을 보냈다.

학원의 명절날

김 일성 수상님께서 이 학원을 다녀 가신 것은 작년 8월 2일이였다.

그래서 해마다 찾아 오는 8월 2일은 학원의 가장 즐거운 명절로 되고 있다.

김 민수 동무는 수상님을 맞던 날의 기쁨과 감격을 다음과 같이 일기장에 적어 넣었다.

《1958. 8. 2. 오늘은 나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오늘 김 일성 수상님이 우리 학원을 다녀가신 것이다.

나는 행복스럽게도 수상님과 악수까지 하였다. 아이들은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마다 나와 악수를 청하였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냐!

수상님은 우리가 자고 깨는 침실까지 일일이 돌아보신 다음 꽃향기 그윽한 공원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원쑤를 미워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로동을 사랑하며 일을 많이 해 보아야 남이 어떻게 힘들어 하는가를 알 수 있고 로동을 싫어하는 아이는 훌륭한 일'군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수상님은 우리들에게 견학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갈 때엔 걸어 가고 올 때엔 기차나 또는 자동차를 타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고생이 아니라 단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생산 실습을 많이 하여 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굳게 하며 녀학생들은 밥도 짓고 옷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수상님은 써클과 체육도 언제나 일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수상님 말씀의 마디마디를 심장에 새겨 들었다

분단 동무들은 수상님이 앉으셔서 말씀하신 공원에 원아들의 붉은 마음으로 기념탑을 쌓고 《8.2 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들은 항상 록음 짙은 《8.2 공원》에서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른다.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의 분단 생활에는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 피여 나고 있다.

원쑤를 미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년단원들의 거의 전부는 미국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원아들이다.

제국주의를 미워하며 원쑤를 잊지 말라고 하신 수상님의 말씀은 원아들의 어린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졌다.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 분단은 《원쑤를 미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김 무남, 홍 봉화 동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때리며 학습을 게을리 하며 지어는 학원을 떠나려고까지 한 것은 원쑤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야기 되였다. 그후 분단은 《원쑤를 잊지 말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공부를 게을리 하는 소년단원은 원쑤를 돕는 것으로 된다》와 같은 제목으로 재미 있는 이야기 모임을 조직하였다. 얼마전 분단은 고산진에 가서 40년의 머슴살이를 지낸 리 달혁 할아버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다. 소년단원들은 리 달혁 할아버지로부터 지주 리 제원의 갖은 착취와 구박 속에서 40년 간의 쓰라린 생활을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리였다.

이 상봉을 통하여 원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놈이 바로 리 제원과

같은 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날 이들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을 더 한층 높이였다.

한편 분단은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을 가지고 독서 모임도 조직했다.

소년단원들은 명직, 명구, 명숙, 용남이들 처럼 소년단 생활을 잘 하며 혁명과 조직에 충직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열성자들의 꾸준한 방조밑에 김 무남 동무는 얼마전 반 모임에서 반장으로 선거되였고 지난 10월 2일 대 모임에서 홍봉화 동무는 대 열성자로 선거되였다. 자주 대수 숙제를 하지 못한 채 학교에 나오군 하던 김 송죽 동무는 수상님의 말씀을 들은 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른다. 그후부터 송죽 동무는 분단 열성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날 공부는 밤을 새우는 한이 있드라도 기어이 하고야 마는 습관을 길렀다. 그는 자기가 푼 숙제의 답이 맞을 때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원쑤를 이겨가는 힘이 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이렇듯 이 분단에서는 학습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루에 세 시간 이상씩 서로 도우며 복습하는 기풍은 이제는 정해진 일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분단에는 2점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

로동을 사랑한다.

수상님이 다녀 가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분단 동무들 중에는 로동을 싫어하는 소년단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와 분단에서 조직하는 일에 참가하지 않았고 꼬마 5개년 계획 활동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분단 열성자들은 수상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로동을 싫어하는 동무들을 도와 주었다. 그들은 로동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깨우쳐 주었다.

그러면서 분단은 로동의 위대한 힘과 그가 얼마나 영예로운가를 인식시키기 위해 수상님의 말씀 대로 강계, 회천, 독로강에 견학을 자주 조직하였다. 지난 3월에는 독로강 발전소 건설자 아저씨들과 함께 일하였다. 이들은 로동자 아저씨들과 함께 《수상님은 왜 우리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둥'불 모임도 가졌다. 여기서 분단 동무들은 강을 막아 전기를 일구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로동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를 알았다. 박 용순 동무는 진동기를 들어 쥐고 언제를 쌓는 타입공 아저씨들처럼 훌륭한 건설자가 될 것을 결의했고 김 옥주 동무는 까소린까를 모는 운전공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소년단원들의 힘으로

수상님이 다녀 가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학원에는 재봉기가 한대 밖에 없었다. 그것도 재봉사 아저씨 한분이 일하였다. 원아들은 모든 것은 나라에서 다 해 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 학원에는 재봉기 열 대가 더 늘었다.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 김 영자 동무는 재봉 크루쇼크를 조직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김 영자, 최 숙자, 강 순자 동무들을 중심으로 재봉 크루쇼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모든 옷가지들은 우리들의 손으로》라는 구호 밑에 재봉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자꾸만 실이 끊어 졌으며 많은 바늘을 못쓰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재봉기를 대할 때마다 항상 수상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짬만 있으면 재봉사 아저씨들을 찾아 갔다. 하나하나 캐 물으며 배워 온 보람으로 이제는 피복 공장 4급공 언니들의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였다.

금년 8.15 명절때 소년단원들은 재봉 크루쇼크원들이 만든 훌륭한 학생복을 입고 명절을 맞이했다.

학원의 나날은 그대로 노래이다

수상님이 다녀 가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분단 동무들 중에는 춤추는 것을 즐겨 하지 않고 체육을 싫어하는 소년단원들이 많았다. 연예, 체육 써클은 주로 몇몇 선수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연 대회에서의 성적은 좋은 편이 못 되였다.

수상님은 써클과 체육도 언제나 일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는 써클 사업을 매월 총화하면서 누구나 음악, 무용, 체육 써클에 망라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김 응명, 문 순조 선생님들에게서 매월 새 노래와 군중 무용 한 가지 이상씩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매일처럼 써클원들의 춤과 노래도 흥겹게 버러진다. 양 수은 동무의 아꼬데온 반주는 매우 좋았다. 이 아꼬데온은 김 일성 수상님이 친히 보내 주신 귀중한 악기이다.

때때로 경연 대회에 출연하는 이들은 언제나 관람객들을 감동케 하고 있다.

수상님이 다녀 가신 날을 기념으로 분단 동무들은 붉은 수첩 하나씩 갖추었다.

분단 모임에서는 날마다 수상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였는 가를 이 수첩에 적기로 결정하였다.

오늘도 이곳 소년단원들은 수상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가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하는 보람차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

우리 분단에서 하고 있는 학습 방법

우리 분단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업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더우기 뒤떨어진 과목은 로어였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여 락후한 동무에게 우수한 동무를 부쳐서 학습을 돕도록 하는 일도 해 보았고 숙제를 해 오지 않는 동무들은 모임과 벽보에서 충고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학습이 뒤떨어진 동무들이 많은 형편에서는 별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동무들이 학습을 잘 하도록 할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우선 분단 내에 학습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길이 6cm, 너비 2.5cm의 쪽지를 많이 만들어 로어 단어 두 개씩 적어 넣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 일에서 우선 분단 열성자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쉬는 시간마다 이 쪽지의 단어들을 외우는 습관을 키워 나갔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 개의 단어는 훌륭히 외울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이 호상 묻고 대답도 하는 사이에 로어 단어는 쉽게 외우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금은 모든 동무들이 로어에 재미를 부치고 열심히 학습하게 되였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이것을 다시 발전시켜 동무들이 힘들어 하는 과목들에도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즉 동무들은 대수, 화학, 물리 공식을 외우는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 과목들에도 우에서 말한 방법으로 학습들을 진행케 하였습니다. 결과 동무들은 아주 쉽게들 공식을 외우게 되였습니다.

함북 은파 고급 중학교(초급반)
제 4 분단 김 현순

다시 찾은 어머니의 품

—함남 단천 제 2 중학교대 8 분단에서—

글 최 국산 그림 장 명룡

다섯 달 전까지만 하여도 영린이는 분단에서 손을 대지 못할 큰 말썽'군이였다.

그는 늘 방근이와 함께 밀려 다니면서 자주 학교를 결석하기가 일수였고 또한 조합 사과 밭에 드나들며,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는 등 늘 말썽을 일으키군 하였다.

분단 위원장인 백식이와 열성자들은 여러번 모임을 열고 그를 충고도 해 주었고 때로는 벽보에다 사과 밭에 들어 가는 만화까지 그려 붙이는 등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 그때마다 영린이는 신경질을 부리며 열성자들과 맞서군 하였다.

영린이는 항상 침울한 얼굴을 하고 분단 동무들과 좀체로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휴식 시간이면 운동장 한구석에서 외로히 혼자 생각에 잠겨 있군 하였다.

이런 때 누가 그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는 대뜸 성을 내며 대들거나 지어는 주먹질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분단 열성자들은 이제는 더는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를 다른 분단으로 옮겨야 한다느니 대 모임에서 단단히 취급해야 한다고들 떠들었다. 여기에 분단 위원장 백식이 까지 장단을 맞추었다.

어느날 분단 화단을 가꾸는 작업에서 영린이가 또 뺑소니를 쳤다. 이에 격분한 백식이는 그날로 지도원 선생을 찾아 갔다. 영린이를 다른 분단으로 옮겨 달라고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흥분된 백식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선생님은 한동안 백식의 얼굴을 바라 보다 입을 열었다. 《백식이! 영린이가 왜 그런 좋지 못한 장난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해 봤나, 열성자들은 분단 동무들의 아픈 점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방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가.》 선생님은 영린이가 왜 요즈음 집에도 들어 가지 않으며 집단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을 타이르듯 말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확실히 분단 위원회는 영린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만 떠들었지 영린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였는 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날 방과후였다. 백식이는 열성자들과 같이 영린이네 집으로 찾아 갔다. 마침 어머니가 분주히 돌아치며 일을 하고 계셨다. 백식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영린이가 어딜 갔는가고 물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웬 일인지 흐려졌다. 한동안 말없이 아이들을 둘러 보시던 어머니는 가는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학교에서 돌아 오더니 어딜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드구나……그앤 내가 온 뒤부턴 영 집엘 붙어 있질 않지!》

이렇게 말머리를 뗀 어머니는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영린이가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말이라면 엇서기가 일수라고 서글피 말하였다.

이때에야 백식이는 영린의 어머니가 계모임을 알았다.

백식이는 영린이가 왜 집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며 나쁜 장난만 하는가를 알았다.

영린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며 새로 들어 오신 훗어머니는 아예 눈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런 데로부터 그에게는 자연 떠돌아 다니는 버릇이 생겨 났던 것이다.

영린에게는 빨리 훗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그의 마음 속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된 백식이의 귀'가에는 다시금 지도원 선생의 이야기가 쟁쟁히 울리는 것만 같았다. 《빨리 해결하여 주자》 자기도 모르게 백식이는 이렇게 입속말로 다짐했다.

이튿날 영린이를 돕기 위한 열성자 모임을 가졌다. 백식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난 열성자들은 모두 깊은 가책을 느낀듯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일처럼 영린이를 도와 나설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영린에게 어머니와 집단에 대한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열성자들은 저마다 자신심을 못 가졌다.

지도원 선생님으로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들에게는 자신심이 생겨 났다.

다음날 백식이와 열성자들이 영린이네 집을 찾아 갔을 때였다. 마침 어머니가 외출하려는 영린에게 석탄에 섞을 진흙을 좀 파다 줄 수 없겠냐고 간청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영린이는 낯을 잔뜩 찌프린 채 휙 돌아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 나왔다.

이날 열성자들은 어머니가 말리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뜰악도 쓸고 흙도 파왔다. 일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너무도 고맙고 감격한 나머지 끝내 아이들을 방안에 들여다 앉히고 찐 고구마까지 가져다 주시였다.

문득 아래'목에 곱게 다린 영린의 새옷이며 새로 사온 듯한 붉은 넥타이까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였다. 이것을 보는 백식이는 어머니가 얼마나 영린이를 사랑하고 돌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다.

백식이는 하루 속히 이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영린에게 전달되게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마음 깊이 다지였다.

다음날이였다. 영린이는 말끔한 양복에 새 넥타이까지 매고 학교로 나왔다. 이날 방과후 백식이와 열성자들은 영린이 한테로 찾아 갔다.

《영린아, 넌 왜 그렇게 어머니 속을 태우느냐, 어제만 해도 그게 무슨 행동이냐 네 옷을 좀 보렴, 어머니가 아니고서야 누가

나는 민청원이 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영예롭게도 소년단원으로부터 민청원이 되였습니다.

그처럼 바라고 원하던 민청원이 된 지금의 나의 가슴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자랑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더우기 군 민청 위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자랑스런 푸른 맹증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 이 얼마나 영예롭고 자랑스런 이름입니까

푸른 맹증을 받은날 밤 나는 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 나는 6년 동안 매고 다니던 붉은 넥타이를 목에서 풀었습니다. 이 때의 마음은 어딘가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년단원 시절이 못내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나의 머리 속에는 흘러간 소년단원 시절이 영화를 보는 것 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청원으로 준비하여 온 6년간! 생각하면 나를 오늘로 키워준 소년단이야 말로 행복과 희망의 집이였습니다.

소년단은 6년 동안에 나를 열성자로, 또는 계속 최우등생으로 키워 주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을 분단 위원장으로 일하였습니다. 나의 귀중한 희망이였던 민청원으로 준비하기 위해 나는 있는 힘껏 공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늘 소년단원들의 앞장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의 참되고 아름다운 품성이 나를 그처럼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소년단원 시절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반면에 보람찬 나날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소년단 생활과 사회적 유익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여 민청 중앙 영예 등록장에까지 등록 되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소년단원 시절! 이것은 나의 일생을 두고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시절로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민청원이 된 오늘의 나의 가슴은 새로운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보다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혁명 전사로 준비하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나는 로동당원들과 민청원 선배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본 받아 둘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적의 화구를 막은 리 수복, 박 원진 영웅들과 같은 슬기로운 혁명 전사가 되렵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눈부신 혁신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민청원 형님들 처럼 새 기술 새 방법으로 일하는 천리마의 기수가 되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민청 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학습에서 누구 보다 모범이 되렵니다. 그리하여 믿음직한 당의 붉은 후비대로 자기를 더 훌륭히 단련하겠습니다.

평남 순안군 어중 중학교
김 상 원

이렇게 옷에 때가 옮을 세라 정성껏 빨아 입히고 새 넥타이까지 사다 주고 하겠니,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돼.》

백식이는 영린이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말해 주었다.

그러나 영린이는 좋다 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린아, 자 이 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접은 곳을 한 번 읽어 봐.》

백식이는 영린에게 《만경대》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

요즈음 백식이를 비롯한 분단 열성자들의 친절하고도 다정한 태도에 마음이 좀 풀려 가고 있던 영린이는 말없이 책을 받았다.

그날 밤 영린이는 오래간만에 집에서 《만경대》를 읽었다. 백식이가 접은 대목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였는가 하는 대목이였다. 이것은 영린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 주었다.

이날밤 영린이는 밤 깊도록 뒤치락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백식이는 항상 영린이와 같이 지내도록 힘썼다. 그는 집에 돌아가면 의례히 그와 의논해서 짠 일과표에 근거하여 공부도 하며 같이 산보도 다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영린이 때문에 한숨을 지으며 눈물까지 흘리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며 어머니의 훌륭한 점들을 다시금 말해 주었다.

어느날 분단에서는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참가한 부모들 틈에 영린이 어머니의 얼굴도 보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영린이도 이야기하였다. 그는 작품을 훌륭히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받아야 할 점까지 찬찬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꼬마 문학가》라고 까지 칭찬 받았다.

분단 열성자들은 영린의 어머니를 둘러싸고 《영린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랑이라도 하듯 그가 책 읽기를 즐겨 한다는 거며 한 번 붙잡으면 끝장을 내고야 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까지 하였다. 《학교에선 이렇게 말 잘하는 애가 왜 집에 오면 벙어리 처럼 뚝 하고 있는지…》

이 말은 한 옆에 앉아 있던 영린의 귀에도 들렸다.

이날 영린이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듯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어머니는 더 세심히 영린이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전보다 더 부지런히 영린의 책상이며 방 안을 늘 깨끗이 거두어 주었고 자주 그의 옷을 빨아 입히군 하였다. 영린이는 차츰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정이 커가는듯 더는 맞서거나 애도 먹이지 않았다.

영린이의 생일날이였다. 어머니는 영린이의 생일을 축하하여 음식을 차렸다. 여기에는 백식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도 초대 되였다. 이때 어머니는 기쁨에 찬 어조로 《우리 영린인 참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젠 집 일도 잘 하고 제 이붓 동생도 잘 돌봐 준단다.》 하며 못내 즐거워하였다. 《어머니, 분단 동무들도 얼마나 기뻐들 하게요. 우린 지금 영린이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 모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 백식의 가슴은 한 없는 기쁨으로 들먹거렸다.

그날 밤 영린이는 숙제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머리에는 동무들과 어머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여지껏 외롭던 마음엔 따뜻한 사랑의 별이 살며시 비치고 있음을 그는 느꼈다. 영린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 곁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아늑한 생각에 잠기기까지 했다.

영린이는 슬며시 자리를 떠나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 곁으로 갔다. 《어머니…》 영린이는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영린의 째진 상의를 꿰매다 말고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어머니의 두 눈에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이 어리였다. 영린이는 나직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난 정말 바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린의 두 눈엔 어느 사이엔가 아름다운 이슬이 반짝이였다. 그러자 어머니도 《영린아…》 하고 감격에 겨워 와락 영린이를 품에 안았다. 어머니 품에 안긴 영린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어머니는 영린이의 두 볼에 얼룩진 눈물 자국을 부드러운 손으로 지워 주시며 오래오래 그를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분단을 찾은 영린이의 노력은 무서웠다.

그는 학습과 생활에서 남이 따르지 못할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학년 말에는 드디여 우등으로 공부하게 까지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열성자로까지 선거 받게 되였던 것이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소년단원이 없게 하렵니다

지난 10월 4일에 나는 대 위원장으로 선거되였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소년단원이 없게 하자!》

이것은 선거받은 날 내가 다진 결심입니다. 왜냐 하면 소년단원의 으뜸가는 임무 그것은 곧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공부를 하는 목적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습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한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소년단원은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어린 전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이야기 모임을 우선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개 분단들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어떻게 학습하셨는가》, 《2점은 소년단원의 수치이다》 등을 내용으로 한 재미 있고도 유익한 모임들을 자주 가지겠습니다. 숙제를 해 오지 않는다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 소년단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년중으로 완전히 락제생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자면 학습을 생산 실습과 옳게 결합해서 잘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작실, 교마 공장, 실습지들을 더 잘 가추어 소년단원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분단 모임에서 학습 형편들을 자주 총화 해 주며 벽보, 속보, 풍자 만화를 통하여서는 좋은 경험을 알려주며 결함을 제때에 고쳐 나가도록 하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우리 학교 대 전체 소년단원들이 높은 열성과 자각을 가지고 훌륭하게 학습하도록 힘을 다 바쳐 일하려고 합니다.

자강도 만포군 해방 중학교대
대위원장 채 승룡

혁명 전통 교양을 실속 있게 조직 하렵니다

나는 이번에 대 위원장으로 선거를 받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하여 열성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동무들은 한결 같이 혁명 전통 연구 사업을 지난 학년 보다 더 실속 있고 재미 나게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조직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사실 지난 기간 우리 대에서는 혁명 전통 연구 사업에서 부족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꾸리는데 있어서도 다만 사진이나 많이 부치고 스크랩이나 감상록을 만드는 것으로 끄쳤습니다.

우선 혁명 전통 연구에서 중요하게 해결 해야 할 것은 교양 내용을 실지 생활과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사업을 더 실속 있게 조직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료들을 체계 있게 갖추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크루쇼크가 중심이 되여 골고루 분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유서 깊은 만경대와 보천보도 답사하며 그 곳에서 혁명가와의 상봉도 조직하며 미술 크루쇼크에서는 만경대와 보천보를 스켓취하여 오며 보천 제 1중학교 소년단원들과도 이야기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원수님이 탄생하신 만경대 중학교와도 자주 서신으로 련락도 가지렵니다. 그리고 《조선 로동당 력사연구실》에는 아동단원들의 생활과 투쟁, 혁명 투사들의 고상한 품성 등을 쓴 책들도 빠짐없이 구비하여 소년단원 동무들이 읽게 하렵니다.

또한 매시기 행사가 있을 때는 그에 알맞는 준비를 잘 하여 연구 발표회, 독서 감상회, 이야기 모임도 조직하며 우등불 모임도 조직하고 혁명가들과의 상봉도 가지며 시 랑송회도 가지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의 사판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원수님이 작전하시고 주무신 휘샤즈거우 밀영지의 모형도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실에 비치할 스크랩도 더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좋은 자료들을 스크랩에 철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매개 소년단원들이 연구하고 배운 빛나는 혁명 전통을 실지 생활에서 꽃 피우게 하렵니다.

함남 단천군 직접 중학교대
대위원장 김 동휘

직조 공장을 도와드린다

우리 분단에서는 얼마전 마을에 새로 생겨난 직조 공장을 견학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반가히 맞아준 공장 지배인 아저씨는 먼저 이 공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단을 짜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노박 껍질, 피마주대 껍질들이 그 처럼 고운 천으로 되여 나오는데 정말 감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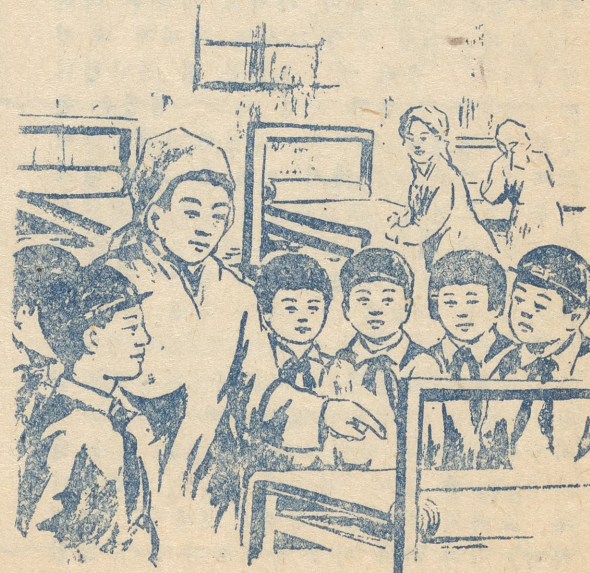
《야! 피마주대 껍질이 저렇게 고운 천이 되여 나오누나.》

《우리들의 집 둘레에는 피마주대가 숲을 이루었으니까 비단으로 뒤덮인 셈이구나》

동무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마주대 껍질을 많이 벗겨 공장에 보낼 것을 다짐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우리 분단 동무들은 피마주대 껍질을 벗기는 일에 떨쳐 나섰습니다.

요즘은 서리까지 내린 뒤여서 껍질도 더 잘 벗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300kg의 껍질을 벗겨 모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것을 공장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공장에서는 우리 분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여 왔었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와 집 주변에 있는 피마주대의 껍질을 하나도 남김 없이 벗겨 보내겠습니다.

함남도 수동군 천을 중학교대
제 5분단 김 석녀

명자의 편지

이국땅 일본에서 갖은 설음과 고생을 겪고 있는 한 어린이의 눈물겨운 이야기와 조국에 돌아 올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 마음을 적은 김 명자 동무의 편지를 여기에 소개한다.

조국의 소년단원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동무들이 보낸 친선 편지를 받은 김 명자입니다. 동무들의 편지를 받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는 어머님께도, 동무들께도 읽어주었답니다.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나는 오늘 편지에서 우리 집 사정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우리 집 식구는 모두 다섯 명이였는데 부두 로동자였던 아버지가 2 년전 굶고 일하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여 무거운 짐에 깔리운 채 돌아 가시고 지금은 어머니; 오빠, 어린 동생 그리고 저까지 네 명 뿐입니다. 우리 집 생활은 참 곤난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생활은 곤난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땐 오빠와 저도 조국에서 보내 온 교육 원조비를 받으면서 조선인 중고등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마저 병으로 눕게 되자 할 수 없이 오빠와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임을 하고 있어요. 처음 얼마 동안 오빠와 둘이서 《아르바이트》 (품팔이)도 하고《안떼이쇼》(삯일 맡는 곳)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했으나 식구들이 하루 한끼도 못 먹었을 때가 많아서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오빠가 취직을 할래도 《센징》 (조선사람) 이라 하여 아무 곳에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매일 새벽부터《안떼이쇼》에 줄을 섰다가 일을 맡아 하고 나는 쓰레기통을 뒤져 고물을 모아 팔기도 하고 다방 (차'집)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한두 끼 밖에 먹지 못하고 끼니를 잇기가 참 힘듭니다. 이보다 더 큰 걱정은 어머니 병입니다. 언제나 습기가 차 있는 랭방에서 앓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약 하나 쓰지 못하는 우리들은 울고만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난 약 없이도 병이 낫는다 걱정말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말로 《뼈도 굳지 않은 저것들이 오죽이나 힘들가…》하며 우시기도 합니다. 이땐 우리도 절로 눈물이 핑 돌군 해요. 동무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가 조국에 돌아 가는 것 만이 이러한 고생에서 벗어 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국 운동이 시작되자 우리 집은 선참으로 총련 (재일 조선인 총 련맹)에 가서 귀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귀국할 날을 손 꼽아 기다리며 조국에 돌아 갈 준비에 바빴습니다. 오빠는 조청 (재일 조선 청년 동맹) 맹원이 여서 매일 밤 야학에 나가 일본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조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어린 동무들을 모아 우리 나라 말과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무들! 8월 14일날이 였습니다. 귀국 협정이 조인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우리 집은 명절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8. 15 명절에 먹으려던 수수쌀로 밥을 짓고 회멀건 배추 국을 끓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이사'짐을 꾸렸습니다. 어느 때든지 떠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였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경찰과 함께 와서 《귀환 안내서》를 주면서 《아직 늦지 않으니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다.》하고 을러대고 갔습니다. 글쎄 《귀환 안내서》에는 우리를 죄수나 전쟁 포로처럼 다루며 언제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며 새힘을 솟게 하는 공화국 기'발마저 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실》을 만들어 《선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동적 일본 기시 정부는 우리 심장에서 조국을 빼앗고 우리를 악독한 리 승만과의 흥정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일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동무들! 올해 여섯살 난 동생 명희는 《엄마 왜 가지 않나? 짐까지 싸 놓고 이사가면 날마다 밥도 먹고 엄마도 아프지 않고… 어서 이사 가자 빨리》하고 매일처럼 조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내 어린 가슴도 미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선전 공작대에 나갑니다. 오빠는 《수송대》원이고 《선전 공작대》원입니다. 우리들은 참 고단합니다. 그러나 힘든 줄 모릅니다. 어서 조국으로 돌아 갔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최근 또다시 큰 불행을 겪게 되였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집과 재물들을 잃어 버렸습니다. 다 찌그러져 가던 판자'집인 우리 집도 쓰러져 당장 몸 가눌 곳도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 총련 지부가 마련해 준 어떤 집 헛간에 앓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번 또다시 조국에서 우리 재일 동포 리재민들을 위해 구제금 30만 원과 쌀 3,000 석, 천 20 만 메터라는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조국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조국에서 보내 오는 《소년 신문》, 《소년단》을 통하여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조국 동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 속히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조국 동무들과 함께 마음껏 배우며 뛰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헤엄이라도 쳐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설음 많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나 따뜻한 조국의 품안에 안겨 행복하게 배우며 뛰놀 내 모습을 그려 봅니다. 나는 이날을 위하여 놈들의 그 어떤 탄압과 속임수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말겠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지상 락원에서 동무들을 뵈올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 효고현

김 명자 올림

'동요'

공장 많은 우리 마을

앞산 기슭 자리 잡은 큰 집은요.
우리 마을 새로 생긴 쎄멘트 공장.
석회석 돌 덩이를 단숨에 녹여
산'더미로 쎄멘트를 만들어 내요.

앞내'물 건너 서면 거게도 공장
맛 있는 과자랑 사탕이랑 만들고
채소, 고기 통조림도 만드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식료품 공장이지요

그 전날엔 야장간도 없던 우리 마을엔
우뚝우뚝 새 공장이 늘어만 가요.
질그릇 사기 공장도 새로 서고요.
먹고 쓰는 물건은 남고 남지요.

평남 서흥군 오 응도

영수…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너희들 왔냐? 그래 이번엔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영수…할아버지 이번엔 학습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이야요.

척척 할아버지…오라, 공부할 의욕들이 막 솟구치는 게로구나, 적말 요새는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니라, 그러나 밤 늦게까지 무리를 해선 안돼,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잠도 자면서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철규…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자면 학습과 휴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가요?

척척 할아버지…허허…이거 참 오늘은 내가 위생학 강의를 해야겠구나. 가만 있거라. 이제 설명해 주지.

너희들 학교에서 왜 45분 수업에 10분 휴식 시간을 갖는지 아니?

철호…거야 머리를 쉬우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지요.

척척 할아지버…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단번에 오래 일하거나 공부를 오래 계속하면 차차 능률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 지며 하품과 잠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피로해졌기 때문이지.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공부를 계속 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들에서는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지키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흔히 생활을 되는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루 생활을 계획 대로 할 수 없개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 가서도 반드시 규칙적으로 산보나 유희를 하며 복습과 예습을 하며 집 일을 도와 주며 집 주위의 청소 미화 사업에도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복습과 예습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세 시간 이상은 신선한 대기 중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키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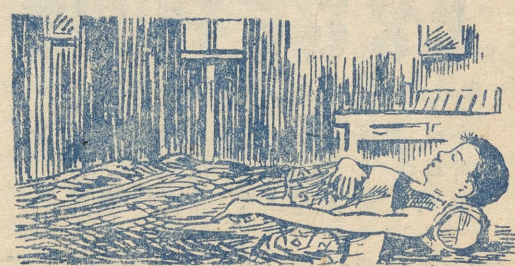
철호…할아버지! 그러면 잠 자는 시간은 대체로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나요?

척척 할아버지…잠 자는 시간은 년령에 따라 다르다. 보통 12~13세의 아동들은 9~10시간, 16~17세의 아동들은 8~9시간 정도의 잠을 자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잠은 반드시 깊은 잠을 이루도록 습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잠 잔다고 하드라도 꿈을 꾸면서 얕은 잠을 잔 것은 짧은 시간에 깊은 잠을 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깊은 잠을 이루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 전엔 반드시 실내를 잘 청소하고 정돈하며 이를 닦고 손과 발을 씻으며 덮고 자는 이불은 머리까지 뒤집어 쓰지 말고 팔을 이불 우에 내놓고 자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저녁 식사는 잠 자기 1~1.5시간 이전에 해야 하며 자기 전에 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침실은 고요하고 어두워야 하므로 반드시 불을 끄고 자야 한다.

영수…할아버지! 이번엔 저 하나 묻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엔 반드시 자세를 곧바로 하고 앉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자세를 옳바르게 하지 않으면 척추가 좌우로 또는 앞뒤로 구부러지는 수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척추가 구부러지게 되면 한쪽 어깨가 추켜 올라 가든가 또는 내려 가든가 하며 웃 몸이 활 모양으로 구부러진 병신 같은 사람으로 되고 말 것이다.

영수…아니, 병신까지도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그렇단다. 특히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뼈는 아직 굳지 못한 뼈로부터 굳은 뼈로 변화하는 화골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구부러지기 쉽단다. 척추의 화골 과정은 대략 20~22세 때에 가서야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세를 옳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연약한 척추가 구부러질 수 있고 일단 구부러진 다음에는 고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겠니?

영수…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옳바른 자세는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척척 할아버지…옳지 그걸 미처 설명하지 않았구나, 한참 자라는 시기에 있는 우리들의 눈'동자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형편에서도 시력을 조절할 수 있단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멀거나 가까운 거리, 또는 지나치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도 이에 알맞게 시력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다.

그러므로 눈과 책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도 능히 책을 읽으며 글을 쓸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 눈'동자는 점차 나빠져서 나중에는 우리들의 눈을 근시가 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을 눈 가까이 갖다 대고 읽거나 머리를 지나치게 수그리는 등 옳바르지 않은 자세를 갖춘다면 눈의 조절 기능을 담당한 신경과 근육들을 긴장하게 만들며 따라서 눈을 피로하게 한다.

이 밖에도 옳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고 가슴을 책상의 가장자리에 기대게 되면 가슴이 눌리우게 되므로 중요한 내장 기관인 심장, 폐, 간장 등의 활동을 장애하며 그 발육에 지장을 준다.

영수…할아버지! 그러면 자세를 옳바르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옳바른 자세를 가지려면 우선 앉을 때 의자를 책상 가까이에 끌어 당기면서 깊숙히 편안하게 앉아야 한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필기할 때에 허리를 의자의 기대기에 가볍게 붙이고 앞가슴과 책상의 가장자리와의 거리는 약 3~5 쎈치메터 가량 떨어지게 앉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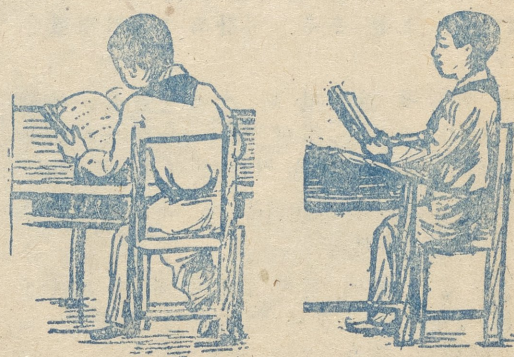
이 때에 손과 팔뚝은 책상 우에 가볍게 놓고 머리는 약간 앞으로 굽히며 넙적다리는 대체로 수평이 되게 하며 발'바닥은 땅'바닥에 편안히 대야 한다.

그런데 흔히 의자의 앞과 모서리에 앉거나 의자를 뒤로 멀리 밀고 상반신을 지나치게 앞으로 구부리고 가슴을 책상에 기대거나 팔꿈치를 책상 우에 대고 손'바닥으로 턱을 고이고 비뚜름히 앉거나 다리를 꼬던가 의자 아래로 몰아 넣는 것 등은 모두 좋지 않은 자세이다.

그리고 앉아서 책을 볼 때에는 책 아래 부분을 약간 몸가까이에 끌어 당기면서 세워 잡는 것이 좋으며 눈과 책과의 거리는 약 30~40 쎈치메터 가량 떨어져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 누워서 하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영수…잘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잘들 가거라.

그는 수학 문제 풀이에서 오늘도 또 5점

최우등생

— 평양시 사동 고급 중학교 대에서 —

조 병 권

하학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온다. 순간 소년단원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 표정이 떠 오른다. 옆사람과 소곤거리며 수업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보내고 있던 동무들과 그 무엇인지 딴 생각을 하며 지루하게 앉았던 동무들은 긴 숨을 내쉰다. 그들은 왈가닥 덜가닥 소리를 내며 책가방을 열고 재빨리 책들을 몰아 넣는다.

그러나 다른 많은 소년단원들은 그와는 반대의 표정들을 짓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재미 있는 수업 시간이 벌써 끝났는가 하는 아쉬워 하는 기색들이다.

《벌써, 오늘 공부 시간도 다 가버렸구나.》

맨 뒤줄에 앉았던 한 소년단원은 하학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듯 이렇게 입속말로 웅얼거리며 책을 덮는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 잘 하기로 이름 난 리 경숙이였다.

동그란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며 꼭 다문 작은 입은 그가 강한 의지력과 꾸준한 노력가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경숙이는 교실 문을 나서자 곧 바로 학교 도서실로 찾아 갔다.

《〈춘향전〉을 좀 빌려 주어.》

《〈춘향전〉? 넌 학과 학습은 하지 않고 웬 책만 그렇게 자꾸만 읽니?》

《……》

경숙이는 그저 대답 대신 빙긋 웃을 뿐이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더 넓고 깊게 하기 위한 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독서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도서 관리원 동무들의 말이 우습게 들렸던 것이다.

사실 경숙이는 사흘이 멀다 하게 도서실을 드나들며 많은 책들을 빌려 가군 했다. 소설책을 빌려 가는가 하면 과학 이야기책도 빌려 가고 때로는 력사 이야기, 동식물 이야기책들을 빌려 가군 했다.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고 싶어하는 경숙이는 교과서 외에 도서실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책들을 많이 빌려다 읽는 것이였다.

경숙이가 《춘향전》을 빌리는 것도 마침 오늘 문학 시간에 《춘향전》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간단히 요약한 교과서의 내용을 복습하는데 필요한 《춘향전》 전문을 한 번 읽고 싶었던 것이다.

경숙이는 자기의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였다. 그는 가끔 력사 박물관, 해방 투쟁 박물관,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공업 농업 전람관, 부근의 지방 산업 공장 등에도 찾아 가 견학하군 했다. 견학을 통하여 그는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훌륭히 익히군 했다.

조선 력사 시간에 1866년 샤만호의 대동강 침입과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 배운 날이였다. 경숙이는 공부를 끝마치자 곧 바로 력사 박물관으로 갔다. 그는 력사 박물관에서 당시 조선 인민들에게 만행을 감행하던 샤만호의 포신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샤만호의 침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도 없는 좋은 자료들이 있었다. 이렇게 박물관이나 전람관에서 실물을 보면서 학습하는 것은 곧 잘 머리에 들어 온다. 그러기에 경숙이는 지금도 1866년 샤만호의 대동강 침입에 대하여 그 누가 물어도 훌륭히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자기의 학습 방법을 들려 주던 그의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경숙이는 공부하는 방을 어떻게 꾸렸는지? 집에서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나는 경숙이네 집으로 가게 되였던 것이다.

경숙이는 자기가 학습하는 방안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렸다. 정면 바람벽에는 김 일성 수상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앞에 보기 좋게 놓인 책상우의 책꽂이에는 책들이 어깨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앞벽에는 《건설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꾸준히 학습하자!》라고 쓴 구호와 《생활을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제목 밑에 정성스레 쓴 일과표가 붙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아 경숙이가 어떻게 학습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저 애게 뭘 뛰여난점이 있다고… 그저 꾸준할 뿐이지요.》

경숙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머리를 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였다.

경숙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의례히 20~30분간씩 앉아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군 한다. 이것은 경숙이가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머리 속으로 더듬으면서 복습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우선 펼쳐 놓고 복습한다. 물론 독서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 드린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는 의례히 공원으로 산보를 나간다. 이것은 하루의 피로를 풀며 새 정신으로 저녁 복습에 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경숙이는 숙제 실행에서 조금이라도 남의 힘을 빌리려 하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이라도 꼭 자기의 힘으로 풀어

조선 력사에서 샤만호의 대동강 침입을 배운날 경숙이는 력사 박물관에 갔다

내는 것이다.

한달전 일이였다. 벌써 저녁 공부를 시작 한지도 1시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경숙이는 아직 첫 문제의 해답을 내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었다. 얼마나 정신을 집중시켰던지 이마엔 송알송알 땀'방울이 맺혔다. 마침 경숙이네 집에 놀러 왔던 경숙이의 사촌 오빠가 보기에 너무 딱 하여 그를 도와 주려 경숙이와 마주 앉았다. 그러나 경숙이는 거절했다. 얼마 후에 경숙이는 끝내 자기의 힘으로 풀어 내고야 말았다.

경숙이는 조그만 문제라도 모를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서 알고 지나간다.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교수 시간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도 경숙이라고 한다.

바로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온 가족이 잠'자리에 누운지 30분 남짓해서였다. 별안간 누웠던 경숙이가 벌떡 이불을 차고 일어나 어두운 방 안을 스적거리며 돌아 갔다. 그는 방안 한구석에 가서 성냥'불을 켰다.

《얘 경숙아 너 잠꼬대를 하지 안느냐?》

어머니는 경숙이의 뜻밖의 행동에 놀라 이렇게 물으며 일어나 앉으셨다. 그러나 잠꼬대는 아니였다. 잠'자리에 누워 지금껏 복습한 내용을 머리 속으로 외우고 있던 경숙이는 력사 과목에서 그만 한 문제가 딱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종내 떠 오르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속 시원히 책을 펼쳐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 났다. 그러나 전기'불을 켤 수가 없었다. 방금 잠들기 시작한 가족들에게 방해가 될가봐서였다. 그래서 그는 방'구석에 가 앉아 가만히 성냥'불을 켜고 책을 펼쳐 들었던 것이다.

경숙이는 배운 지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활에 리용하며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 쓴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실험 도구나 각종 실험 기구 제작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집에서는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많은 것을 만들어 본다.

며칠전 어머니가 부엌 부뚜막을 수리했는데 불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온돌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바닥은 싸늘하였다.

경숙이는 물리학에서 배운 《열의 전달》과 《주택의 난방》에 대한 지식을 응용하여 부뚜막을 다시 수리했다. 경숙이가 고친 후 불은 아주 잘 들었다. 어머니도 경숙이의 솜씨에 대단히 기뻐하셨다.

어느 일요일이였다. 경숙이는 마을에서 세 아주머니가 수집한 레일을 힘겨웁게 수매소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저 아주머니들은 마찰을 감소시킨다면 헐하게 운반 해 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고생들 하누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집으로 달려가 4 개의 굴'대를 구해 왔다. 그리고는 그 굴'대들을 레일 밑에 받쳐 미끄러지는 마찰을 구르는 마찰로 바꾸었다. 이리하여 레일을 헐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다.

꾸준히 복습하며 배운 지식을 생활에 리용하며 다져가는 경숙이 한데서는 시험 공부를 찾아 볼 수 없다. 많은 소년단원들이 시험 대목에 가면 공부에 갑작 열성이 오르지만 일상적으로 꾸준히 공부해 오는 경숙에게는 그런 《열성》이 필요 없는 것이다.

경숙이는 올해 초급반 3학년에 진급했다. 인민 학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시험도 퍽 많았지만 그는 아직 5점 이외의 다른 점수는 모르고 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는 의례히 공원으로 산보를 나간다

① 안도현 쌴도만 평청구 아동단원 허 희균은 일찌기 혁명 사업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반일 부녀회의 보호 밑에서 믿음직한 어린 혁명 투사로 자라났다. 김 일성 장군의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아동단에서 희균은 원쑤를 미워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다.

② 슬기로운 아동단원 희균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누구보다도 앞장 서 나아 갔다. 그는 아동단 생활의 여가마다 항상 부락 인민들의 일을 도왔고 어른들을 존경하는데 모범을 보였다. 특히 유격대 가족들의 농사 일을 돕기 위해 그는 매일처럼 밭으로 나아가 가족들을 도왔다. 부락에서는 희균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군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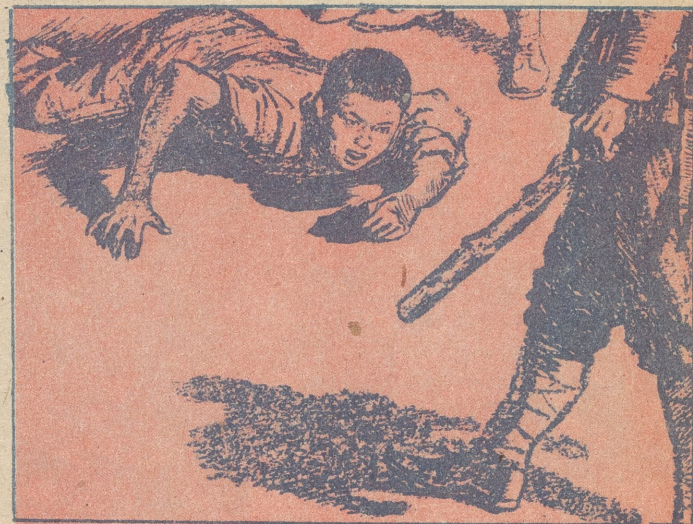
③ 1935년 평청구에도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다. 김 일성 장군 유격 부대의 활동이 날과 더불어 더욱 치렬해 지자 왜놈들은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미쳐 날뛰였다. 놈들은 매일처럼 부락에 달려 들어서는 집을 불사르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이럴 때마다 희균은 부락의 로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섰다.

④ 몇 차례의 왜놈들의 《로벌》로 인하여 부락에는 벌서 숫한 고아들이 생겨 났다. 희균은 부녀회원들과 함께 이들의 안전을 위해 깊은 산 속에 막을 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주린배를 움켜쥐고 머루며 버섯을 따러 돌아 다녔다. 그는 모진 허기중에 몇차렌가 숲속에 쓰러지면서도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희균이는 같은 아동단원인 오 철훈이와 함께 유격대 가족의 집짓는 일을 돕고 있었다. 이런때 수많은 왜놈 기병대와 왜군들이 불시에 부락에 쳐 들어왔다. 놈들은 부락에 들어 오자 마자 새로 지은 집들에 불을 지르고 피난하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부녀회 책임자인 박 봉녀 아주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십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뛰여 오르고 있었다.

⑥ 이것을 목격한 희균이는 철훈이와 함께 박 봉녀 아주머니께로 달려 갔다 총알이 귀'가를 스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은 아우성치는 아이들과 로인들을 이끌어 안전한 밀림 속으로 피신시키느라 서둘었다. 그가 나머지 아이들을 숨기고 났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명의 왜놈들이 총창을 번쩍이며 달려 들었다.

⑦ 불행히도 희균은 놈들께 붙잡히고야 말았다. 희균은 눈 앞이 아찔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의 위험보다도 주위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아이들과 로인들이 생각났다. 만일 놈들을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한다면 아이들과 로인들의 생명이 위험하였다. 더는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었다. 희균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비상한 결심이 일어났다.

⑧ 왜놈들은 희균에게 부락 인민들이 숨은 곳과 이 근처의 유격대의 밀영과 병력 배치 정형을 대라고 울러댔다. 그러나 희균은 한 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고 놈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약이 오른 놈들은 희균을 치고 차고 야단을 쳤다.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진 희균이는 별안간 큰 목소리로 웨쳤다. 《대겠다! 우리 유격대는 먹골에 있다!》이는 거짓말이였다. 희균은 근처에 숨어 있는 철훈이 들으라고 웨쳤던 것이다.

⑨ 아니나 다를가 왜놈들은 희균을 길잡이로 내세웠다. 희균은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생각으로 우정 험한 길을 골라가며 먹골을 향해 걸어 갔다.

희균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수많은 부락 인민들을 학살한 왜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만일 유격대에 련락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인민들은 그동안 몸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때 마음은 오히려 즐겁고 후련해 지기까지 했다.

⑩ 한편 고아들을 데리고 숨어 있던 철훈이와 박 봉녀 아주머니는 희균이의 웨침을 듣자 곧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나가 희균을 구원하고 싶었으나 그들 주위에는 수많은 인민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희균이가 왜놈들을 먹골로 끌고 가려는 데는 리유가 있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헤여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였기 때문이다.

박 봉녀 아주머니의 지시를 받은 철훈이는 유격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⑪ 길은 갈 수록 더욱 험해지기만 했다. 삼면이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둘러 싸인 함정 모양을 한 골안에 들어서자 왜놈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여기에서 유격대의 기습을 당하는 날이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음을 깨달은 왜놈들은 희균을 불러 세웠다.

그러나 희균은 조곰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왜놈들을 태연히 바라보는 것이였다.

⑫ 한편 아동단원 철훈의 련락을 받은 유격 부대는 왜놈들을 섬멸하기 위한 출동을 개시하였다. 유격대는 질음'길로 나는 듯이 먹골로 향하였다.

⑬ 희균의 꾀에 넘은 것을 알게 된 왜놈들은 기급을 하며 퇴각하려고 서둘렀다.

희균은 공포에 질려 어쩔 바를 몰라 돌아치는 왜놈들을 비웃는 낯으로 태연히 바라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던 것이다.

약이 오른 왜놈 대장은 미친듯이 권총을 빼들었다.

이때였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요란한 총성이 터졌다. 놈들이 아우성치며 쓰러졌다. 이틈을 타서 희균은 날쌔게 몸을 피해 산판을 기여 올랐다.

⑭ 삼면을 포위한 유격대는 돌아갈 길을 잃고 갈팡 질팡하는 왜놈들을 향해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유격대의 돌격 나팔 소리가 류량히 산'골안을 울리자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터졌다.

⑮ 인민을 사랑하는 희균의 불타는 마음은 드디여 인민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왜놈들을 모조리 소탕해 버리게 하였던 것이다.

승리의 행진가 높이 부르며 부락으로 돌아 오는 유격대 맨 앞장에는 슬기로운 아동단원 희균을 비롯한 철훈이의 빛나는 얼굴도 보이였다. 부락 인민들은 희균을 자랑찬 어린 영웅으로 맞이했던 것이다.

행동의 거울

날이 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거울에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동들이 더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동무들이 거울에 비쳤을가요.

기특한 행동

이 거울에 비친 용감한 소년단원들은 누구일가요? 이들은 리원 제 1 중학교 박 정회, 김 안수 동무들이랍니다. 이들은 큰 소나기에 도랑물이 넘어 나서 벼가을을 해 놓은 벼'단들이 떠 내려 가는 것을 물 속에 뛰여 들어 건져 냈지요. 이리하여 두 동무는 네 발구나 되는 벼'단을 구해 냈답니다. 조합 재산을 자기 물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은 큰 칭찬을 받았지요.

꼬마 선전대

거울에 비친 이들은 함남 영흥군 영흥 중학교 3학년생들인 리 수자, 한 영옥 오 신은 동무들을 비롯한 선전대원들이 랍니다. 이 동무들은 지금 영흥 역에서 차 시간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인터나쇼날》, 《적기가》의 노래 보급을 하고 있는거예요.

주인 없는 꼬마 상점

거울에 비친 이 꼬마 상점을 보세요. 이것은 북청군 신북청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자기 학교에 차려 놓은 주인 없는 상점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치르느냐구요? 그건 써 붙인 값 대로 상점 안에 있는 함에 넣으면 그만이지요.

착한 소년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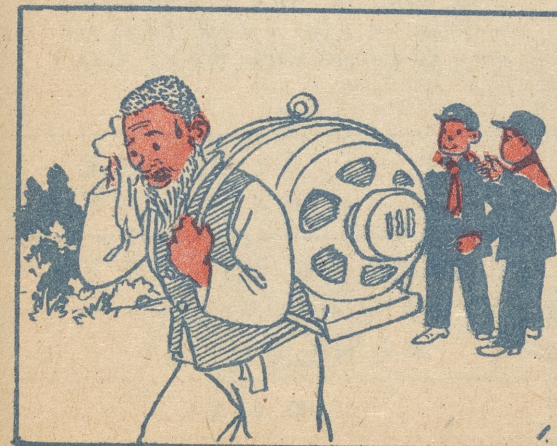
이 착한 소년단원은 홍원군 초등 학원 제 4분단 강 명숙 동무랍니다. 이 동무는 길을 가다 길 옆 풀 속에서 돈 10 원을 발견했지요. 명숙 동무는 돈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애타하겠는 가를 생각하고 곧 이것을 분단 지도원 선생님께 바쳤답니다.

길'가에서 우는 붉은 넥타이

동무들 거울에 비친 이 붉은 넥타이를 보세요. 넥타이는 소년단원들의 귀중한 상징인데도 이 넥타이는 이런 천대를 받았지요.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구요? 바로 저기서 뽈을 차고 있는 황북 송림시 8중학교 인민반 3학년 박 언덕 동무랍니다. 그 옆의 동무도 좀 보세요. 먼지가 난다고 넥타이를 마스크삼아 쓰고 다니지 않아요? 이 동무들이 과연 소년단원이라 말할 수 있을가요?

할아버지를 도와

경흥 중학교 제 11분단 허 영호, 전 용국 동무들은 집으로 돌아 오던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발동기를 등에 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이것을 본 이들은 소년단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두 동무는 사양하시는 할아버지에게서 끝내 발동기를 받아 들고 10 리가 넘는 먼 귀락리 송산까지 운반해 다 드렸답니다. 이 아름다운 품성에 감탄하신 할아버지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들에 대해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어 봅시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달에는 현상 문제 대신 작문 짓기를 합시다. 제목은 특별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동무들의 대와 분단, 반에서 혁명 투사들의 애국심, 동지애, 곤난을 이겨내는 정신, 용감성을 본받아 훌륭한 일을 한 소년단원들의 생활을 내용으로 한 작문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작문 내용에 나오는 인물과 내용은 반드시 자기의 학교에 있는 사실이여야 합니다.

우수한 작문은 다음 다음호 《소년단》에 게재합니다.

9호 현상 문제 해답

민청 출판사에서 발행한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이란 책에서 뽑아낸 문장입니다.

제목은 《당을 따른 아동단원들》이며 그 문장은 이 책의 62페지 우쪽 20행부터 27행까지에 걸쳐 씌여져 있습니다.

당선자

함북도 종성군	종성 초등 학원	남 상선
함북도 무산군	랑영 중학교	김 세흡
함남도 북청군	신북청 중학교	유 경식
함남도 신창군	지산 중학교	고 병석
강원도 안변군	미현 중학교	김 창식
강원도 고산군	죽근 중학교	오 영수
강원도 법동군	여해중학교(인민반)	김 용국
평북도 신의주시	백운 중학교	정 세강
평북도 곽산군	삼단 중학교	박 연옥
평북도 청성군	청수 중학교	김 하두
자강도 송원군	송원 고중 (초급반)	김 계화
자강도 만포군	별오 초등 학원	유 순남
자강도 전천군	길상 중학교	리 광해
평남도 강서군	태평 중학교	배 신길
평남도 안주군	안주 초등 학원	김 창현
량강도 갑산군	차동 중학교	남 동철
량강도 부전군	호반 중학교	곽 문철
량강도 후창군	고읍 중학교	박 용철
개성시	사직 중학교	김 애경
개성지구 개풍군	광답 중학교	김 순옥
개성지구 판문군	평화 중학교	김 광훈
황북도 연산군	생금 중학교	노 재금
황북도 황주군	황주 초등 학원	김 전화
황북도 신평군	수두 중학교	손 금선
황남도 재령군	석탄 중학교	김 재근
황남도 옹진군	본영 중학교	윤 은숙
황남도 해주시	제 1 중학교	김 강하
평양시	문수 중학교(인민반)	최 영실
평양시	삼마 중학교	김 최남
평양시	랑난 중학교	김 준필

알림

소년단 1959년 10호 27페지 《어찌 한시인들참을 수 있으랴!》의 제1단 우로부터 30행과 31행사이에서 《쎄멘트 10만 포대》가 빠졌음을 알립니다.

1959년 11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11월 16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11호 (총 121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4535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추운데…

1
나를 좀 떠밀어 주어. 맑은 공기를 가라 넣어줄테니..
추운데 아침부터 찬 공기를 끌어들여?

2
추운데 세수가 다 뭐야!
얼굴을 씻고가요!

3
추운데 나는 네가 제일 좋다
나만 끼고 있지말고 나가 운동을 해요!

4
목욕탕
넌 목욕을 하지 않니?
추운데 감기에 걸릴려구

5
추운데 겨울에는 이게 제일이야
엎드려 책을 보면 몸에 해로워요

6
콜링 콜링 아이구 아파..
춥다고 개인 위생도 안지키고 몸단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